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0편

Jeff Pippenger

2026-01-16

30번

마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적 성취에는 종말의 때의 이정표, 메시지가 공식화되는 이정표, 9/11이라는 이정표에 대한 두 증인이 포함되며, 하나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내부 메시지의 증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의 테러리즘이라는 외부 메시지의 증인이다. 마태복음의 열두 가지 메시아적 성취 가운데 두 가지가 9/11의 이정표를 나타내는 것은 합당한데, 9/11에는 항상 이중성이 수반되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8일의 죽음은 우리가 살펴본 다섯 번째 이정표였고, 이어 2023년 7월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여섯 번째였으며, 2024년의 부활이 일곱 번째였다. 여덟 번째 메시아적 성취는 한밤중의 외침이다.

메시아의 이정표 중 여덟 번째는 한밤중의 외침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이르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의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마태복음 21:4, 5.

예측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스가랴 9:9.

오백 년 전에 주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 높여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9.]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더라면, 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예언을 성취했고, 영감이 세상에 주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실망을 가리키고 주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또 다른 메시지를 제시하는 그 예언들을 완전히 이해했다더라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알맞은 때에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성취했다. 위대한 논쟁, 405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개선 입성의 역사와, 또한 1844년에 한밤중 외침 기별이 선포된 평행한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14만 4천은 "그들의 실망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이해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그의 입에는 달겠지만 결국 쓰게 될 작은 책의 기별에 대하여 미리 들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다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만 그러하다.” Life Sketches, 196.

과거의 ‘주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여러 섭리적 행위들과 함께, 계산상의 오류를 그분의 손이 덮으신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겪을 실망의 모든 요소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밀러파가 자신들의 실망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밤중의 외침’ 선포의 역사는 하늘로 인도하는 바로 그 빛으로 확인되며, 이는 엘렌 화잇의 맨 처음 환상에 언급되어 있다. 14만 4천은 제자들과 밀러파의 실망을 이해해야 한다. 그 빛을 거절하는 것은 길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들 뒤, 길의 시작점에는 밝은 빛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이 ‘한밤중의 외침’이라고 하였다. 이 빛은 그 길 전체를 따라 비추어 그들의 발을 밝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 바로 앞에서 그들을 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곧 몇몇은 지쳐서, 성까지는 너무 멀다고 말하며, 이미 전에 그곳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화로운 오른팔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 팔에서 나온 빛이 재림의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치자,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또 어떤 이들은 경솔하게도 자신들 뒤의 빛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의 빛이 꺼져 발아래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길에서 벗어나 아래의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 떨어졌다.”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훈, 57.

여덟 번째 이정표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으로 예표된 밤중의 외침이다.

“한밤중의 외침은, 성경적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증으로 전달된 것이라기보다는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함께한 것이었다. 의심도, 의문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하셨을 때, 절기를 지키려고 나라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감람산으로 몰려갔고, 예수님을 호위하며 따르던 무리와 합류하면서 그 순간의 감동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환호성을 더욱 높였다. [마태복음 21:9.] 이와 같이, 재림주의자들의 집회에 몰려든 불신자들(어떤 이는 호기심에서, 어떤 이는 단지 조롱하려고)도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기별에 수반한 확신케 하는 능력을 느꼈다.” 예언의 영 4권, 250, 251.

말세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예언적 필연으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실망을 겪어야 하며, 그로 인해 비유에 나오는 지체의 때가 도래한다. 지체의 때를 겪는 경험이 없다면,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도 또한 재림 신자들의 경험을 예증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어쨌든, 말세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1844년 4월 19일에 견줄 만한 실망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는 그 비유의 경험이 곧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처녀들이라고 지칭한 십사만

사천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러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은 몇 개나 되는가? 모든 비유는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지만, 열 처녀의 비유는 과거와 미래에 '글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특별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1844년 이후부터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진리로 남아 있을 셋째 천사와 비교된다.

“나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던 열 처녀의 비유로 자주 인도된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 시대에 적용되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어 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대진리가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세상 끝날까지 열 처녀의 비유는 현재의 진리이며, 한밤중의 외침은 문자 그대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악함 가운데, 기만과 미혹 가운데, 곧 죽음의 그늘 아래 누워 있는 한 세상이 있다,—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누가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영혼의 진통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겠는가? 나의 마음은 장차 있을 미래로 이끌려 갔는데, 그때에 신호가 주어질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으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등불을 다시 채울 기름을 얻는 일을 지체할 것이며, 너무 늦게서야 그들은 기름으로 표상된 품성이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6년 2월 11일.

한밤중의 외침은 14만 4천의 운동에서 다가오는 다음 이정표이다. 그 이정표에는 일요일법에 앞서 신실한 자들을 향해 시작되는 박해가 동반된다. 그 박해는 외부적이기도 하고 내부적이기도 하며, 내부적 박해에는 두 가지 뚜렷한 상징이 포함된다. 그 상징들 가운데 하나는 유대이고, 다른 하나는 산헤드린이다.

메시아의 아홉 번째 이정표는 은화 30닢을 대가로 한 배신이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그들이 은 서른 개를, 곧 값이 매겨진 자의 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을 매긴 그 사람의 값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발값으로 주었다.’ 마태복음 27:9, 10.

예측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삼십 개를 달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그들이 나를 값매긴 그 참 좋은 값이로다 하시므로, 내가 은 삼십 개를 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스가랴 11:12, 13.

유다의 배반은 거짓 제사장들의 배반을 상징한다. 이는 30이라는 수가 제사장의 나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레위인이기도 한 제사장들은 언약의 사자에 의해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된다. 유다가 받은 은 서른 닢은 일요일 법 하에서 거짓 제사장들이 정화되는 것을 상징한다. 유다는 십자가 직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같은 날이었다. 유다는 산헤드린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여겨졌던 자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께 임한 기름부음을 따르는 제자다. 그의 세례 때 임한 기름부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으니,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분이 한 이레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증하시려 했기 때문이며,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 가운데 하나가 이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세례 때 능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곧 그의 세례를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었다. 그가 능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세례 때였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기독교 신학계에서 '기독교 신앙고백'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신학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과 학자들의 논의는 중요하지 않거나 어쩌면 사소한 어떤 것을 지목하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가 되었다고 기독교가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15, 16.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바로 그 진리를 담고 있었다. 시몬 바요나는 '비둘기의 기별을 듣는 자'라는 뜻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침례의 기별이었다. 그의 침례는 9/11과 일치하며, 가룟 유다는 한때 9/11을 이해한다고 공언했지만 여정에서 길을 잃는 자들을 대표한다. 가룟 유다는 산헤드린의 상징이 아니다. 산헤드린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산헤드린을 위해 증언했지만, 산헤드린의 반역의 상징성은 가룟 유다의 반역과는 다르다. 산헤드린의 반역은 다음 꿈에 표현되어 있다.

나는 내 글들을 모두 챙기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 오렌지에서 두 번의 집회를 열었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격려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았다. 우리 자신도 주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었다. 그 밤 나는 배틀크리크에 있는 꿈을 꾸었다. 문 옆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둘씩 짝지어 집으로 행진해 오는 무리가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엄격하고 결연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 맞이하려고 응접실 문을 열려고 몸을 돌렸으나,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장면이 바뀌었다. 그 무리는 이제 가톨릭 행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손에 십자가를, 다른 한 사람은 갈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오자, 갈대를 든 사람이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세 번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금지 처분을 받았다. 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교단에 대항하여 말했다."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집안을 가로질러 북쪽 문으로 뛰쳐나가 어느새 내가 아는 이들도 섞여 있는 한 무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배신당할까 두려워 그들에게 한마디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어디로 돌아서든 열심히 캐묻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애썼다. 나는 자주 되뇌었다. "이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이 말해만 준다면!"

우리의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보며 나는 많이 울고 기도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동정이나 연민을 읽어내려 애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내게 말을 걸어 위로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나는 한 번 군중 속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내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의도를 감추었다. 나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만 준다면!' 같은 방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내가 소리 내어 우는 소리를 듣고 나를 깨웠다. 내 배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깊은 침울함이 나를 짓눌렀다. 증언, 제1권, 577, 578.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관해 더 많이 말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화이트 자매는 자신의 '저술'을 '거두어 모아' 배틀크리크로 돌아가는 귀로에 올랐다. 그 당시 배틀크리크는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오늘날의 타코마 파크나 그리스도 시대의 예루살렘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저술과 관련해 겪어 온 갈등을 밝혀 둔 뒤, 여행을 위해 저술을 챙겨 모았다. 그녀의 꿈의 맥락은 그녀의 저술에 관한 것이다. 그 갈등은 라이트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다.

라이트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11호용 내 원고를 출판부로 보냈고, 모임이 없을 때는 거의 매 순간을 12호용 원고를 써내려가는 데 아껴 썼다. 라이트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동안 육체적·정신적 기력이 심하게 소모되었다. 나는 쉬어야 한다고 느꼈지만, 숨 돌릴 틈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일주일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개인적인 증언문을 여러 쪽이나 썼다.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내게 있었고, 내가 느끼는 책임이 너무 커서 밤마다 몇 시간밖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처럼 말하고 글을 쓰는 일에 힘쓰던 중, 배틀크리크에서 낙담스러운 내용의 편지들을 받았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침체, 곧 정신적 고통에 이르는 낙심을 느꼈고, 잠시 동안은 생명의 기운이 마비되는 듯했다. 사흘 밤을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생각은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함께 지내던 동정심 많은 가족과 남편에게는 최대한 내 감정을 숨겼다. 아침저녁 가정 예배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나의 짐을 위대한 짐지기께 맡기려 애썼지만, 나의 수고와 마음의 짐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간구는 비통에 사무친 마음에서 나왔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기도는 끊어지고 이어지지 못했다. 피가 머리로 치밀어 자주 어지러워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특히 글을 쓰려고 애쓴 뒤에는 코피가 잦았다. 나는 글쓰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증언들이 내게 있음에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짓눌린 불안과 책임의 짐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그 사업을 맡은 이들이 자금이 크게 부족하고 형제들을 움직이기 위해 내 증언의 영향이 필요하므로, 내가 보건원에 관해 내게 보여 주신 것을 글로 써낼 수 있을 때까지 제11호의 출판을 미루는 것이 최선이라 여긴다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관에 관해 내게 보여 주신 것의 일부를 써 내려갔지만, 뇌에 피가 몰리는 탓에 그 주제를 끝까지 다 풀어내지는 못했다. 만약 제12호가 그렇게 오래 지연될 줄 알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제11호에 실린 그 부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 쉬면 다시 글쓰기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몹시 슬프게도 뇌의 상태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든 개인적이든 증언을 쓰겠다는 생각은 접었고, 그것들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내내 괴로움 속에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배틀크리크로 돌아가,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여기저기 파손된 동안에는 그곳에 머물고, 나는 그곳에서 제12호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남편은 배틀크리크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몹시 간절히 원했다. 나는 내 원고들을 챙기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 증언, 제1권, 576, 577.

마지막 때에, 배틀크리크와 그녀가 '잘 알고 있던' 이들로 표현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가 가톨릭 행렬로 변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는 가톨릭 행렬로 변했다. 꿈에서 그들은 '둘씩 둘씩' 왔는데, 한 사람은 갈대를,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집을 둘러 원을 그리고 세 번 선포했다. "이 집은 금지되었다. 소유물은 몰수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수도회를 거슬러 말했다." 배틀크리크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몰수한' '집' 안의 '소유물'은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의 어떤 '거룩한 수도회'를 '거슬러 말한' 것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질문은 "종교재판을 주도한 가톨릭의 어느 수도회였는가?"가 될 수 있다. 종교재판은 예수회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도미니코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예수회가 관여하고 나서는 잔혹함과 유혈을 앞장서 주도하는 수도회가 되었다.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개신교는 막강한 적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종교개혁의 초기 승리가 지나가자, 로마는 그것을 파멸시키려는 희망으로 새로운 세력을 소집하였다. 이때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교황주의의 모든 옹호자들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가장 강력한 단체였다. 세속적 유대와 인간적 관심에서 끊어지고, 자연적 애정의 요구에는 죽은 자가 되었으며, 이성과 양심은 완전히 침묵당한 그들은, 자기들의 수도회 외에는 어떤 규범도 어떤 결속도 알지 못했고, 그 권세를 확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신봉자들로 하여금 추위, 굶주림, 노고,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위험을 맞서며 고난을 견디게 하였고, 고문틀과 지하감옥과 화형대 앞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지켜 들게 했다. 이러한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 예수회는 그 추종자들에게 광신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험을 견디게 하고, 진리의 능력에 대항하여 속임수의 모든 무기를 동원하게 했다. 그들에게 너무 커서 저지르지 못할 범죄도, 너무 비열하여 쓰지 못할 속임수도, 너무 어려워서 취하지 못할 변장도 없었다. 영구한 가난과 겸손을 서약했으나, 그들의 치밀한 목표는 재물과 권세를 획득하고, 개신교의 전복과 교황권의 지배권 재확립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도회 일원으로 나타날 때 성스러움의 옷차림을 하고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며,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세상을 버렸다고 공언하며, 선을 행하고 다니신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흠잡을 데 없는 외양 아래에는 가장 범죄적이고 치명적인 목적이 자주 감추어져 있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그 수도회의 근본 원칙이었다. 이 규범에 따르면, 교회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하면 거짓말, 절도, 위증, 암살이 용서될 뿐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로 여겨졌다. 예수회는 각종 위장을 하고 국가의 요직에 파고들어 왕의 고문 자리에까지 올라 국가의 정책을 형성했다. 그들은 하인이 되어 주인을 염탐하는 간첩 노릇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군주와 귀족의 아들들을 위한 대학과 서민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그 결과 개신교 부모의 자녀들까지도 로마 가톨릭의 의식을 따르도록 끌어들이어졌다. 로마 교회의 예배가 지닌 모든 외적 화려함과 과시가 총동원되어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상을 현혹하여 사로잡았으며, 그리하여 선조들이 수고하고 피 흘려 쟁취한 자유가 자손들에 의해 배신당했다. 예수회는 급속히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황주의의 부흥이 뒤따랐다.

그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재설립하는 교황 칙서가 반포되었다. 일반적인 혐오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톨릭 국가들에서조차 이 끔찍한 재판소는 교황과 통치자들에 의해 다시 설치되었고,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만행들이 그 비밀 지하 감옥에서 되풀이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며, 가장 지적이고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 경건하고 헌신적인 목사들, 근면하고 애국적인 시민들, 걸출한 학자들, 재능 있는 예술가들, 숙련된 장인들이 수천 수만 명이나 살해되거나 다른 나라로 도피를 강요당했다.

로마는 종교개혁의 빛을 꺼뜨리고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으며 암흑시대의 무지와 미신을 되살리기 위해 바로 그러한 수단들을 동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이 루터의 뒤를 잇도록 일으키신 고귀한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개신교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힘은 군주들의 호의나 무력에 빛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작은 나라들, 가장 미약하고 힘없는 민족들이 그 요새가 되었다. 그것은 멸망을 피하는 강대한 적들로 둘러싸인 작은 제네바였고, 북쪽 바다의 모래톱 위에 자리 잡아 당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왕국이던 스페인의 폭정과 맞서 싸우던 네덜란드였으며, 또한 종교개혁을 위해 승리를 거둔 황량하고 척박한 스웨덴이었다. 대쟁투, 234, 235.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이교적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지도자들은 엘렌 화잇의 저작을 둘러싼 문제로 반대자들을 법정에서 세우지 않겠지만, 배틀크릭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가톨릭주의의 짐승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재림주의가 그들의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세속 권력을 추구했을 때, 그들의 "거룩한 질서"의 열매가 드러났다.

스페인 종교재판의 오토 다페(신앙의 행위) 의식 맥락에서 갈대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연결된 상징적 요소로 나타난다. 갈대는 가시관을 씌울 때 예수의 손에 쥐어 준 가짜 왕관을 가리키며, 로마 병사들이 그를 치는 데 사용되었고, 조롱, 고통, 멸시를 상징한다.

오토다페 행렬에서는 십자가가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흔히 검은 크레이프 천으로 가려진 녹색 십자가는 종교재판소의 상징으로 쓰였고, 전날 별도의 준비 행렬에서 들고 나와 행사 동안 전시되었다. 이는 재판소의 권위를 상징했다.

재산 몰수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조치(압류 또는 몰수)를 말하며, 재판소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 이단 심문에서 흔히 부과되던

처벌이었다. 이는 아우토 다 페의 판결문에서 공개적으로 공포되어, 공개적 굴욕과 억지 효과를 강조했다.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은 울려 퍼지는 포도원의 노래를 침묵시키기 위해 그녀의 저술을 금지하려 드는 지도부를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요일 법령이 공포될 때 그들이 자신의 품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직전에 벌어질, 불경한 세력의 마지막 행동이다. "가톨릭 행렬"은 태양에게 절하는 옛날의 스물다섯 사람과 상응한다. 다음의 네 단락 가운데 첫 단락은 "마지막 때"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을 제시한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목사들이 "교회들과 야외의 대규모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신다. 이 논쟁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취한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 안식일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 아니라, 관습과 전통의 잡동사니 아래에 그것을 묻어 다른 이들도 지키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다. 교회들에서 그리고 야외의 대규모 집회에서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한 주의 첫째 날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할 것이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있으며, 이러한 재난은 점점 늘어나 한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연이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작은 무리는, 일요일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가져오는 자들로 지목될 것이다.

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일요일 준수를 장려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로 분명히 지칭하며, 또한 그들이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작은 무리'를 '지목'할 것임을 말한다. 다음 문단에서 그녀는 과거 시대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전 문단은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그녀가 말하는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과 대조하여 지목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과거의 역사를 들며, 그 역사들이 말세에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매우 분명하다.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기 위해 이 거짓을 부추긴다. 사람들을 하여금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그는 모든 거짓 종교의 전파에 적극 관여하며, 그릇된 교리를 강요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종교적 열성의 외피 아래, 그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고안해 내고,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해 왔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같은 영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는 우리 시대에 되풀이될 것이다.

악을 이루기로 마음과 의지를 굳게 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자신들이 저지를 범죄를 이미 결의했다. 이들은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법칙을 거부하고, 그 대신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웠으며, 그 기준에 자신들을 견주어 스스로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의 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허용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 법의 요구에 충실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분의 법을 향한 그들의 미움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을 몰아붙였던 바로 그 종교적 광기의 영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같은 부패한 조화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 두었던 옛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았다. 교회는 규례를 바꾸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결과는 교만과 불신, 그리고 배교이다. 그런 교회의 참된 상태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패시켰으니, 그들의 흠은 그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로다.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이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리뷰 앤드 헤럴드, 1884년 3월 18일.

예언의 신에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들에 대한 말세의 박해를 지적하는 구절들이 연이어 있으며, 그녀가 지칭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일반적인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그녀가 거듭 유대 교회로 예표된다고 지목하는 그 교회이다. 그녀의 저술 속 그 분명한 구절들은, 그녀의 꿈이 매우 적절히 밝혀 주듯,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화잇 자매의 저작물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의 동기가 된다. 가톨릭의 성스러운 수도회로 바뀐 배틀크릭의 지도자들이 금지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그녀의 집의 명백한 소유물인 그녀의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녀의 저작물에 대한 그들의 공격은 예레미야의 글에 대한 공격으로도 표현된다. 엘렌 화잇의 꿈은 예레미야의 글이 불태워진 것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3세대에서는 타협이 지배적인 주제였다. 제3세대는 버가모 교회로 대표된다. 1919년 W. W. 프레스콧의 '그리스도의 교리' 출간에서 시작하여 1956년 '교리에 관한 질문' 출간에 이르기까지는, 알파 출판물로 대표되어 오메가 출판물로 끝나는 과도기를 가리킨다. 첫 번째 책은 W. W. 프레스콧이 배교한 개신교의 그리스도 관점을 택하기 위해 유다 지파의 사자를 거절했음을 보여 주었다.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그 책은 밀러파의 예언적 기별의 요체를 제거하여, 가톨릭과 배교한 개신교가 숭배하는 공허한 예수에 대한 정의만 남겼다. 그 세대의 마지막 책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파괴하는 성화와 칭의를 정의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는 책임을 받았고, 재림주의는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그분의 예언의 말씀까지도 보관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1919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옹호를 거절한 책이 나왔고, 그것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제3세대의 시작을 표시했으며, 그 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책으로 끝났다.

"마음의 완고함을 방치하고, 교만과 자기 의로 인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 내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잘못을 드러내 주실 때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당신은 같은 자리를 거듭 밟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비슷한 성격의 실수를 계속 저지르도록 내버려지고, 지혜가 계속 부족할 것이며, 죄를 의라 하고 의를 죄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팽배할 수많은 미혹이 당신을 에워쌀 것이며, 당신은 지도자를 바꾸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2월 16일.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는, 스물다섯 명의 남자들이 두아디라의 권위의 상징 앞에 절할 때, 네 번째 세대인 교황 교회인 두아디라로 이어졌다.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채택한, 교회 회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세속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지극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 조치는 국가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결과는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 행사와 공직 취임의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오직 세속적 이해타산에 의해 움직여 마음의 변화 없이 교회에 가입했다. 이리하여 교회들은 상당 부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었고, 심지어 성직자들 가운데도 교리의 오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처럼, 국가의 도움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거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요한복음 18:36)고 선언하신 분의 복음을 지지하기 위해 세속 권세에 호소하려는 시도가 가져오는 악한 결과가, 콘스탄틴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자주 목격되어 온 그대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그 정도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겉으로는 세상을 교회에 더 가깝게 끌어들이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교회를 세상에 더 가깝게 끌어갈 뿐이다. 대논쟁, 297.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그 정도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겉으로는 세상을 교회에 더 가까이 이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교회를 세상에 더 가까이 끌어갈 뿐이다." 1977년 5월 18일, 버트 B. 비치(교회 북유럽-서아프리카 지부의 이사였으며 교회 간 관계에 관여하던 인물)는 로마에서의 단체 알현 자리에서 적그리스도인 교황 바오로 6세에게 금도금 메달을 증정했다. 이는 세계 신앙고백 가족들의 서기 회의의 모임 일부였다. 이 사건은 Adventist Review(1977년 8월 11일자)에 보도되었고, Religious News Service는 공식 SDA 대표가 교황을 만난 최초의 사례로 언급했다.

주님께서서는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 위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믿음과 교리의 규범이 무엇인지 정하셨고, 성경이 가정마다 비치되는 책이 되도록 뜻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로마와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개신교도들은 한때 이 거대한 배도의 교회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 교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지금도 로마 교회와의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원칙은 털끝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 로마는 자신과 개신교 사이의 틈을 줄인 적이 없다. 모든 접근은 그들, 곧 개신교도들이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은 성경 진리를 거절하는 일이다. 자신과 교황권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후퇴한 교회다.

루터, 크랜머, 리들리, 후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순교한 수천의 고결한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야말로 참된 개신교도들이다. 그들은 진리의 신실한 파수꾼으로 서서, 개신교는 로마주의와 결코 연합할 수 없으며, 교황권의 원칙들과는 동과 서만큼이나 멀리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진리의 옹호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그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의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이른 시대의 의인들은 로마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비록 이 오류의 체제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이 재산과 생명을 위태롭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분리를 지킬 용기를 냈고 곧세게 진리를 위해 싸웠다. 성경의 진리는 그들에게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생명보다도 더 귀했다. 그들은 미신과 거짓 궤변의 더미 아래 진리가 묻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백성 앞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며,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혀 주신 것을 담대히 선포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의 피로 우리를 위해 자유와 특권을 사 주었다. 그런데 자신을 개신교도라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악의 권세에 쉽게 내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값비싼 대가, 곧 피값으로 산 특권을 내어주어야 하겠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이 우리를 로마교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신 뒤에, 다시 이 반그리스도적 권세에 우리 자신을 종속시켜야 하겠는가? 우리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 곧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서명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타락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겠는가?

산과 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유럽을 지진처럼 흔들었던 루터의 음성은 예수의 고귀한 사도들의 군대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옹호한 진리는 화형대의 장작으로도, 고문으로도, 지하 감옥으로도, 죽음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귀한 순교자들의 군대의 음성은 우리에게 로마 권세가 말세에 예언된 배도요, 바울이 자기 시대에도 이미 역사하기 시작함을 보았던 불법의 비밀임을 말해 주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급속히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교황주의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진리를 듣는 데서 귀를 돌린 자들은 그 미혹하는 허탄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가톨릭 경당들, 가톨릭 대학들, 수녀원과 수도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신교 세계는 잠든 듯 보인다. 개신교인들은 그들을 세상과 구별해 주던 표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자신들과 로마 권세 사이의 거리를 좁혀 가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는 데서 귀를 돌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 위에 비추신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그들과 연합하는 자들에 의해 과거의 잔혹한 박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업신여기며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재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록 성경이 '용이 여자를 향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갔다'고 말함에도,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을 것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교황주의는 인간 본성의 종교이며, 인류의 대다수는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결과로부터는 자신들을 풀어 준다고 하는 교리를 좋아한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가져야만 하며, 인간의 고안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이 종교는 육신적 마음에 잘 맞는다.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의의 기준인 십계명에서 교만하게 돌아서며, 하나님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 자신의 체면에 걸맞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릇된 길, 금지된 길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라 교황의 본을 따라 스스로 충분하다 여기고 자만하게 된다. 그들은 영성과 자기부인을 가장 적게 요구하는 형태의 종교를 원하며,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지혜로는 교황주의를 혐오하도록 이끌 수 없기에 자연히 그 제도와 교리 쪽으로 끌려간다. 그들은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분별 있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기는 스스로 너무 깨우쳤다고 여긴다. 주님의 길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온갖 미혹에 활짝 열려 있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믿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모순된 거짓을 진리인 양 속여 넘겨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탄의 기만의 걸작품은 교황주의다. 그리고 큰 지적 암흑의 시대가 교황주의에 유리했음이 입증되었듯이, 큰 지적 광명의 시대 또한 그 권세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우월성에만 몰두하여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로마는 무오성을 주장하고, 개신교도들 역시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견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회들의 태도가 낙심스러울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에 대한 충성을 굳게 지켜 갈 백성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믿음과 교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을 높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 것이다. 그들은 순전한 복음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그들의 믿음과 교리의 기초로 삼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사람들이 내던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다윗의 기도가 적절하다— '여호와여, 이제는 주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거의 보편적인 조롱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 율법의 구속력 있는 요구를 보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존중심을 잃을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내던지고 그 위에 무시와 경멸을 더하면 더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만큼 더 공경하라. 시대의 징조, 1894년 2월 19일.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에게 금메달을 수여하기 두 해 전인 1975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EEOC v.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C-74-2025 CBR)에서,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두 명의 여성 직원인 메리케이 실버(소송 제기 시점에는 이미 퇴사한 전 편집자)와 로나 토블러를 대리하여, 교회의 출판사를 상대로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성별 기반 차별을 주장했다. 교회는 종교적 면제 조항을 원용하고 자신의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관행을 부분적으로 방어했다.

1976년 2월 6일자 선서 진술서(법원에 제출된 변론서의 일부)에서, Neal C. Wilson(당시 교회의 북미 지부장이었으며, 이후 1979~1990년 대총회장을 역임)은 교회의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역사적 견해를 다루었다. 이 진술은 교회가 교황제와 유사한 '위계제'를 가지고 있다는 규정에 반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관련된 전체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비록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역사에서 그 교단이 뚜렷한 반(反)로마 가톨릭적 관점을 취하고, '위계제'라는 용어를 교황제적 교회 통치 형태를 가리키는 경멸적 의미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측의 그러한 태도는 금세기 초와 지난 세기 후반의 보수적 개신교 교단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반교황주의의 한 발현에 지나지 않았으며, 적어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관한 한 이제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넘겨졌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황권을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던 교회의 전통적 예언 해석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반영한다. 교회 안팎의 비판자들은 이를 현대

에큐메니즘이나 법적 방어에 부합시키기 위해 그 반가톨릭적 입장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윌슨은 1985년에 "... 극동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추기경'이 한 명도 없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추기경'이 아마 두 명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각 디비전 회장들을 '추기경'으로 지칭했다.

화이트 자매는 교황과의 거리를 좁히는 교회는 배도한 교회라고 말했다! 셋째 세대의 타협은 에스겔 8장에서 담무스를 위해 우는 것으로, 그리고 버가모의 타협으로 나타난다. 1863년부터 1888년까지의 첫째 세대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대표했고, 밀러주의 운동의 첫사랑은 예언의 기별이었으며, 그 예언의 기별의 첫 장은 1863년에 제쳐진 '일곱 때'였다.

1888년부터 1919년까지, 서머나와 에스겔의 은밀한 방들로 대표되는 둘째 세대는 1915년에 화이트 자매가 잠들면서 예언의 영의 죽음을 목격했다. 증언을 완성하려면 네 세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배도한 백성이 어떻게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금지'할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주간의 첫째 날을 용인 가능한 것으로 내세울 수 있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점진적인 반역을 이해해야 한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함께 일하며,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태양에게 절하는 자들은 산헤드린으로 대표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인내가 적게 드러났고, 얼마나 많은 쓰디쓴 말이 오갔으며,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규탄이 쏟아졌는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많은 이들이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큰 죄인으로 여겨 왔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이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정죄하는 이들은 빛을 거의 받지 못했고, 기회와 특권도 거의 없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우리 교회들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받아 온 그 빛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크게 진보했을 것이며,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 잘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빛을 자랑하면서도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너, 가버나움[큰 빛을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아, 네가 [특권에 있어서]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해진 능한 일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 성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대하여,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행하리라. 또 내가 에브라임의 온 자손, 곧 너희의 모든 형제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관들을 세우셨고, 그 기관들은 세상의 기관들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 기관들은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 아래, 오직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증언이 임했으나, 많은 이들이 책망과 경고와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들으라, 오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로 모래를 두어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것이 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 물결이 비록 스스로 솟구칠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하며, 비록 떠들어도 능히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배반하고 떠나갔도다.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그는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추수의 정한 주간들을 지켜 주신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불의가 이 모든 것을 돌려보냈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막아 버렸느니라. . . . 그들은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판결하지 아니하면서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의 권리를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같은 나라에 내 영혼이 보응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며, 내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소나기가 거두어지고 늦은 비도 없었느니라. ... 이제부터라도 너는 내게 "나의 아버지여, 주께서는 나의 젊은 때의 인도자이시니이다" 하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Review and Herald, 1893년 8월 1일.